

전남, 재생에너지 남아돌아도 수도권 전송 못한다

전력망 부족에 지자체 태양광 등 인허가 제한... 발전 중단·축소까지
데이터센터·반도체 산단 대거 조성하고 송·배전 인프라 확충 나서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력망 부족 등을 이유로 오히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요가 있는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이 부족한 탓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조건부 허가하는 등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대거 조성해 자체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송·배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정보제공 시스템인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이 공식한 '태양광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지난달 7일 기준 2396건, 사업을 개시한 건수는 1828건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태양광 사업자가 많은 지역으로, 전기사업허가 건수는 4만811건, 사업 개시 건수는 1만 7999건에 이른다.

특히 전남은 그동안 타지역 대비 전력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큰 만큼, 전력량을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유치에 나서는 한편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2014년 나주에 자리잡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오는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밖에도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송·배전 시설 입주 반대 등으로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하고, 지난 9월부터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 지역민의 반대 및 행정절차 자체로 본래 계획보다 평균 4년 가량 지연되면서 충분한 전력망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매년 태양광 사업자가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송·배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전력이 남아돌면서 울해 들어 전력 생산을 제한하는 출력 제어 조치가 내륙에서만 전년 대비 15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제어 현황'에 따르면 내륙에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이 제한된 것은 지난 8월 기준 31건으로 집계됐다. 출력 제한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전력이 과생산되면서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해 강제로 발전량을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던 출력 제한 조치가 단기간에 폭등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사업자가 매년 대폭 증가하는 반면, 송·배전 인프라는 크게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특히 전남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반면,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전력계통 접속 제한 및 출력 제한 조치가 필연적"이라며 "당초 태양광은 분산형 전원 시스템 개념으로,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전남 등에 태양광 사업자 대부분이 몰리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을 2032년 이후 접속 조건으로 허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전남도는 기초단체들과 대응기구를 꾸려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재생에너지 지리적 여건을 갖춘 호남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역압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국정농단 규탄 국민행동의 날' 집회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공동취재단)

기온 뚝 '쌀쌀'

광주·전남에 5mm 비

광주·전남 지역에서 5일부터 한낮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 오전 광주·전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그친 뒤 낮기온이 급강할 것"이라고 3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비와 더불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그친 후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 낮 기온이 5도 가량 떨어지겠다.

4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19-22도에 분포하겠으며, 5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낮 최고기온은 14-18도를 보이겠다. 초속 15m의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2도 가량 더 낮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일부 내륙과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오는 8일까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이어지다 이번 주말 사이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농작물 냉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IA, 이범호 감독에 '26억 재계약' 우승 선물

김주찬·김민우 코치 영입

'통합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재계약'이라는 우승 선물을 받았다.

<관련기사 18면>

KIA는 3일 이범호 감독과의 재계약 소식을 발표했다. 계약조건은 계약기간 3년 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 총액 26억원이다.

KIA는 호주 캔버라 스포링캠프가 진행되던 지난 2일 이범호 감독을 타이거즈 제11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계약기간 2년, 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 총액 9억에 '초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던 KIA는 앞선 계약을 파기하고 '우승감독'에 맞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다.

재계약에 성공한 이범호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구단에 감사드립니다. 신뢰를 보내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에서 우승을 결정



이범호 감독

지는 그날의 함성이 잊혀지지 않는다.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이다.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임기 내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2011시즌부터 KIA를 대표하는 선수이자 주장으로도 활약한 이범호 감독은 퓨처스 총괄 코치와 1군 타격 코치로서의 경험을 쌓은 뒤 올 시즌 'KBO 첫 80년대생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전임 김종국 감독의 경질로 인한 '급한 불'을 끈 이범호 감독은 사령탑 첫해 통합 우승까지 이뤄냈고, 3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이범호 감독은 기대하고, 예고했던 대로 올 시즌 '주장 같은 감독' 역할을 하면서 선수들을 하나

로 묶었다.

선수들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한 그는 선발진이 4명이나 부상으로 이탈하는 초대형 악재 상황도 관리하면서 정규시즌 1위 질주를 이끌었다.

그리고 2017시즌 선수 이후 7년 만에 사령탑으로 맞이한 한국시리즈에서도 4승 1패의 전적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불패 신화'를 이뤘다.

재계약으로 힘을 실어준 KIA는 '이범호 감독 체제' 구축을 위한 코치진 영입도 진행했다.

KIA는 3일 김주찬과 김민우 코치의 영입을 발표했다. 2021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타격 코치로 활약한 김주찬 코치는 벤치 코치를 담당한다. 이범호 감독은 '절친' 김주찬 코치를 벤치 코치로 해 코치진을 개편하고 내년 시즌을 이끌게 된다. 김주찬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독의 경기 운용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KIA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김민우 코치는 1군 수비 코치를 맡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사장 퇴진 요구...조선대 끝모를 내용 >6면

타이거즈 왕조 재건 본격 향해 시작 >18면



호남의 누정 원림 - 나주 기오정 >22면

Mercedes-Benz Certified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25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